

목록

2016_1	1
2016_2	2
2016_3	3
2016_4	4
2016_5	5
2016_6	6
2016_7	7
2016_8	8
2016_9	9
2016_10	10
2016_11	11
2016_12	12
2016_13	13
2016_14	14
2016_15	15
2016_16	16
2016_17	17
2016_18	18
2016_19	19
2016_20	20
2016_21	21
2016_22	22
2016_23	23

그림비

; 그림비는 순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여는글 

롤링페이퍼 

지정소식 

└ 잘가요 2015년 ‘지정인의 뉘’

문정 is 뭔들, 유쾌한 연애티틀

교수님은 LOVE ♥ 뜻 깊은 스승의 날

대동제로 뭉친 한성대학교, 그 속 문정과

감사했어요 ‘너나들이’

34대 회장단 인터뷰

2016년 집부 이야기

2017 차기 부장 차장 소감

학술답사, 신나게 학습하고 추억 만들기

도활부,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만들어진 인문학

지정인소식

ㄴ 함께해요, 서울 북 페스티벌

해외봉사! 그것은 무엇인가요

취업Zone

ㄴ 사서공무원, 그것이 알고싶다

발행후기

여는 글



처음 편집부장님께 ‘그림비’의 여는 글을 의뢰받고 어려운 숙제를 받은 냥, 정말 오랫동안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골똘히 고민을 계속했지만 뽀족한 답을 없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생각해보니 매년 5월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전해주는 편지를 벌써 4번이나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장도 제대로 못해서 이번 기회에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전할까 합니다.

순우리말로 청년, 젊은이를 뜻한다는 ‘그림비’, 지금의 여러분일 텐데요. 하루하루 누구와 함께 어떤 생각을 나누며 꿈을 꾸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면담이라는 이름아래 한 학기에 몇 주, 거의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앞으로 뭘 할까요’ 혹은 ‘지금 저는 잘 하고 있는 걸까요’입니다. 밝게 웃으며 들어와 편하게 얘기를 나누다가도 진로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의 웃음이 사라지고 말죠. 그맘때 나는 어땠지 하고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싶어서 저의 그림비 시절을 떠올리면 저 또한 역시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그 고민은 오랫동안 한참을, 아니 살아가는 동안 내내 해야 할 질문일거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니 걱정하지 말자”가 그 질문에 대한 바보 같지만 꼭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졸업 이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할지, 필요한 스펙에 내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이번 학기에 취득해야할 자격증이나 성적 걱정보다는 계속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서 앞으로의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꿈이어서 이루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꿈을 꾸는 것도 그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꿈은 꿈일 뿐 현실감각이 없다고 여겨져서 꿈꾸기를 그만두거나 너무 허무맹랑한 꿈인 건 아닐까 싶어서 애써 꿈을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용기가 없어서 꿈만 꾸던 것들을 해내는 친구들을 보면 놀라고 부럽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을 해서 계획했던 여행을 다녀오고, 락페스티벌에도 가보고, 하고 싶었던 동아리를 친구와 함께 만들어서 해내고...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분명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을 텐데 자극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같이 했으면 해요.

지레 겁을 먹거나 혹은 귀찮다는 핑계로 나의 꿈을 방해하지 말고 많은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경험에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이 없이 뭐든 다 내 꿈에 보탬이 됩니다. 하질 말걸, 괜히 했어 싶은 실망과 좌절도 좋은 경험으로 그 안에서 배우는 게 분명 있으니까요.

문정인으로서 그동안 갖고 닦은 전공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우리 꿈을 체계화시켜보도록 합시다. 꿈꾸기, 스스로에게 묻기, 우선순위 정해보기, 분류하고, 실질적인 방법 찾기!!!

여러분에게 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저에게 쓰는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어서 기대고 싶거나 지칠 때 늘 곁엔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꿈꾸는 걸 멈추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꿈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 11. 21

박희진



rollingpaper



♥ 좋아요 2016년

rollingpaper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화정보학과 #문정과 #롤링페이퍼 #1학년 #새내기 #1학기

#강가비 친구들아~ 정말 우리 과 동기들끼리 사이좋은 것 같아서 정말 좋다!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강석진 대학교에 적응하느라 한 학기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밌고 착한 동기들과 선배들 덕분에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구혜린 고등학교 때 보다 부지런해진 것 같다. 늦잠자고 싶다.

#김동희 애들이 한 학기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하장~♥♥

#김민주 생각보다 더 어려운 대학생들이라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김보민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학기가 지나가버렸는데 그 동안 동기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았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놀아서 후회 없는 대학 생활 많이 하고 싶다. 아직 못 친해진 동기들 더 친해져요♥

#김소희 대학 처음 들어와서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경험들 한 것 같아서 후회 없는 대학생들 누린 것 같아요! 물론 노느라 자고 공부도 열심히 못했지만 이것도 새내기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문정과 앞으로도 서로 친하게 지내요! 파이팅^^♥

#김수연 안 비쁜 듯 비뻐다. 다음 학기에는 좋은 시간표를 짜야겠다.

#김지현 처음에 입학할 때는 낮가리는 성격 때문에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 괜한 걱정이었습니! 동기들 다들 너무 재밌고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우리 꼭 같이 졸업하자^^)/~

#김한솔 시험 너무 어렵다. 제발 만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문정환 김귀옥 교수님 강의 개꿀이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 (충담) 하하

#민지현 걱정이 많았는데 무사히 1학기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2학기에는 수강신청 꼭 성공하고 싶고 친구들과 더욱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박근형 과 친구들 모두 활기차고 씩씩하고 긍정적인 것 같다. 다른 건 몰라도 사교성 하나는 정말 좋은 친구들 조별 토론시간마다 대화가 이뤄지고, 조별 발표 결과물들이 모두 관찮게 구성된 걸 보면 더더욱 좋은 친구들인 것 같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많겠지만 늘 이겨냈으면 좋겠다. 특히 과제 때문에 고통 받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는데 너무 끝물까지 미루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걱정하기보단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대학생이 되어서 과거에 비하면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때로는 주어진 의무 등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말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쳐나가고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박영선 정말 우리 과 동기들 너무나 사랑하고 짱이야 내가 많이 시끄럽고 장난쳐도 너무나 착하게 받아주고 도움주는 선배들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이로 꾸준했음 좋겠다 모두 늘 파이팅!♥

#박준수 정신없이 1학기가 금방 지나갔다. 무엇을 달성하겠다고보다는 대학에 적응하는 것과 동기들과 친해지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았나 싶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 남은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자.

#안상현 동기들이 너무 착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민석 처음 이호신 교수님 수업들었을 때 지각하지 않는 성실한 어른이 (?가 되기로 다짐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2학기 때는 좀 더 성실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운주 처음 만나서 어색했는데 벌써 한학기가 지나갔다니!!! 친해진 친구들도 있는 반면 아직 많이 친해지지 못 한 사람이 많아서 아쉽다. 다들 방학 잘보내.

#윤소혜 대학생으로 보낸 첫 학기 많이 설레기도 했고 또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한 학기였습니다. 동기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친해지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워요. 다음 학기 더 많이 친해지자 문정 새내기!

#이다솔 대학생들 생각보다 재밌고 좋아요 잘 지내봐요

#이서연 첫 학기라 실수투성이에 부족했지만 다음 학기부터 좀 더 완벽한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시영 처음에는 적응 잘할까 걱정했는데 다 착하고 잘 대해줘서 좋았어요! 문정과 짱!

#이원상 나빠고 다 모범생인 듯하다. 나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 흑흑

#이한솔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다들 착해서 적응 잘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장광현 좋은 친구들이랑 선배님들을 많이 만난 것 같다. 학점관리가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고 있다. 학점 잘 관리하고, 동기들과 트러블 없이 지내면서 무사히 졸업해야겠다.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힘내자!!

#전성동 대학생이 돼 낯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며 보낸 첫 학기가 벌써 끝난다는게 실감이 안 납니다. 다음 학기는 더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정서빈 재미있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도서관과 여기서 알게 된 도서관은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걸 알아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교수님들도 열의를 가지고 수업하셔서 즐겁게 배울 수 있었고, 선배들과 동기들도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동기들이랑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2학기 때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학년 새내기여서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았고, 그만큼 학업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서가 될 것 입니다!

#정승훈 솔직히 나도 대학교 생활은 처음이라서 설렘이었다. 한 학기동안 힘든 날도 워낙 많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것마저도 즐거웠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동기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도 늦게 학교를 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씩씩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나름 만족하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쁠듯하지만, 뭐 살다보니 내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꿈꾸고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다. 아무튼 대학교 생활을 즐겁게 마칠 수 있어서 기쁘다.

#정주이 다음 학기에 동기들과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진승현 순식간에 한 학기가 지나간 것 같아요.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를 지내고 싶습니다!

#최예은 대학교에 와서 벌써 첫 학기가 끝나가는데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 덕분에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낸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만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후회 없는 대학생들 하고 싶다!

#한수연 대학생들 처음이라고 긴장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무사히 한 학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번 학기는 깔끔하게 말아먹었으니 다음 학기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허은정 대학생이 되고 우리 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고 앞으로도 즐겁게 지내고 싶다.

#곽지혜 떨면서 수강신청을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학기가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대학교 강의는 나의 정공을 중심으로 배운다는 것이 새로웠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듣고 싶고, 뜻 깊은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

#권지용 대학교를 다니면서 바쁨과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생활이 참 좋았던 것 같다

#김경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끝나간다...

#김수연 3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하던 대학, 원하는 학과에 오게 되어서 기뻐고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수업들도 좋았다. 1학년이라 전공수업을 제대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들게 될 전공수업들이 기대된다.

#김유희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생활에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이 돼서 나름 재미있게 생활하고 있다.

#김정한 국영수 공부 안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한 학기가 끝나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김차현 대학 와서 좋은사람들 만나서 좋았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연 원래 낮가리는데 동기들이 잘 대해줘서 1학기동안 즐거웠어. 앞으로 남은 7-a학기 잘 부탁해~

#나연휘 재밌게 학교 잘다니고 있어요. 학교주변에 아무것도없는게 흠이지만..수업은 재밌게 듣고 있답니다~

#노서영 대학교 들어와서 적응하고 보니 벌써 한학기가 지나있어서 신기하다. 한학기 동안 정말 즐거웠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좋다. 앞으로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다.

#문서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경험해보는 대학생활과 자유로움이 너무 좋았다. 고등학생 때와 다른 수업방식도 재밌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기쁘다.

#문준혁 1학기 보내면서 많은 친구들과 사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박나영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활과는 달라서 새롭기도했고 즐거운 것 같다~

#박명현 새 학기에 세웠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해서 아쉽다. 다음 학기에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야겠다.

#박진범 재수를 하고 들어왔던 한성대에서의 1학기는 정말 저에게 많은 추억들을 안겨줬습니다. 그 많은 추억들 중에 저는 엠티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쳤었는데 그때 당시는 많이 쪽팔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성대에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습니다.

#박하영 첫 대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야간이라 여유 있게 학교가고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 재미있었어요 그만큼 시간도 빨리 가서 벌써 기말이라 슬프네요ㅠㅠ

#송지선 고등학교 다니던 때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책임이 늘어난다는걸 실감하는 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시들시들해진 학점을 보고나면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까.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서 달력을 보면 놀라게 된다.

#연형모 NICE TO MEET YOU

#이수민 고등학교 때랑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보니 생소하기도 하고, 학교랑 집이 거리가 꽤 되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배우고 싶은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 같아 보람되다.

#이은지 새로운 학교, 선배님, 동기들을 만나 학교생활을 나름 알차게 한 것 같아 좋았다. 다음 학기도 이번학기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고 꼭 수강신청 성공해 수업에도 더 즐겁게 참여하면 좋겠다.

#이현주 1학기동안 고생 많았어요~다 같이 놀고 즐기고 아주 가끔은 공부도하고 문정광!입니다. 2학기 때도 잘 지내요~방학 잘 보내세요!!

#임소연 벌써 신입생으로 1학기를 보냈다. 사실 올해 초 개인사정으로 원래 계획한 진로를 포기하고 급히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알아보느라 힘들고 바빠서 1학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났을 때 동기들은 다 했는데 아쉽다. 라는 마음이 너무 크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임수현 1학기가 어느새 훌쩍 지나갔는데 다들 고생 많았고 2학기에도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선배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전광준 애들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들 수고했고 다음 학기에도 잘 부탁해 ^^

#전정운 고등학교 입시 때와 같이 무엇인가에 이끌리는 공부가 아니라 자유로운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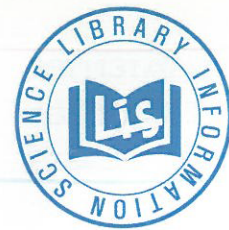
#정민수 지난 한 학기동안 전에 못해봤던 경험들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재미나게 보내봐요~

#조강희 대학도 고등학교랑 별 다를 것 없구나 싶습니다.

#최연우 한 학기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대학생활을 좋은 친구들과 즐겁고 알차게 보낸 것 같다.

#최준영 엠티와 일일호프를 하면서 과 친구들과 얼굴도 익히고 선배님들도 만나 뵈 수 있어서 보람차게 보냈던 1학기 같습니다.

#황선민 벌써 한학기가 지나고 첫 번째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 처음 해보는 일도 많고 미숙했지만 재미있었던 한 학기였다. 다음 학기도 즐겁게 보내고 싶다.



rollingpaper



♥ 좋아요 2016개

rollingpaper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문정과 #롤링페이퍼 #16학번 #새내기 #2학기

#강가비 2학기 수업은 너무 어려웠어. 다들 수고했어~

#강석진 2학년 때도 다들 파이팅하세요!

#구혜린 1년 동안 다들 고생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보다 더 알차게 보내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2학년 때 봐요~!

#김동희 아프면 안돼요... 부들부들..다들 방학하면 건강검진 받으세요~

#김민주 입학하고 신입생O갔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끝나간다니 엄청 놀랍다. 걱정했던 것보다 무난하게 1년을 보낸거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평탄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보민 처음 하는 대학생활 되게 재밌고 뜻 깊게 보내서 좋았어요. 상상했던 대학생활이랑 같았을까? 4년에도 다 같이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

#김소희 말 많고 탈 많은 1학기가 지나고 이제 거의 2학기의 끝이 다가 오네여.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즐거웠어요! 이 학년 때도 즐겁게!!!@

#김수연 앞으로도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고 싶다.

#김지현 1학년 잘 마무리하고 2학년이 기대가 된다.

#김한솔 1학기 때보다 2학기 때 시간표가 더 널널해서 편하다

#문정환 처음엔 학교다니기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니 다닐만하다

#민지현 한 학기동안 모두 수고했구 친구들이랑 더 편해지고 즐겁게 보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잘 지내요~

#박근형 수업만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오고 조별과제 처음 받았을 땐 데드라인이 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받았던 것 같다. 그만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학기는 1학기와는 달리 낮은 서지학과 정보학을 배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잘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관련 학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1학기에 비해 문헌정보학문에 더 친숙해지게 된 것 같다. 동기들은 놀 때는 재밌게 놀고 공부해야 할 때는 제대로 공부하고 나도 그렇고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매번 지각할 것 같아 일찍 등교하는 편인데 지각을 안 하도록 이런 습관이 제대로 배이고 공강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조별과제는 싫다.

#박영선 벌써 일 년? 두등! 벌써 이학년이라니 ㅠㅠ 내 일학년을 돌려줘! 쌤 쌤 ㅠ오엠쥬 ㅠ우리 문정 남자들 군대가 버리면 ㅠㅠㅠㅠㅠㅠ 슬프다 ㅠㅠ 일단 다들 수고했쥬 ㅠ강의들을때 내가 시끄럽다고 짜증난다고 생각한다면 갠톡 프리즈 쫌 마니 상처받겠지만 더 나은 내가 되도록!!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헬 ^^ 모두 사랑하고 아깁니다. 다들 한층 성숙해지는 2학년을 향해 고우고우 파리투나잇~>

#박주용 즐거웠어요~

#박준수 대학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쌀쌀해졌다. 대학생활을 나름 성실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칭찬해주고 싶다. 친한 동기들한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대학교 1학년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다.

#안상현 지금까지 재밌었고 모두 시간 많이 지나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민석 문정과 파이팅!!!!

#우윤주 추워지니까 1년이 훌쩍 지나감을 느낀다.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윤소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다슬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연 문정과 짱!!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시영 2학기도 즐거웠어, 알찬 대학생활 하자~왕 기모찌 상현찌 앙 뽀비우스의 띠 뽀찌!

#이원상 된다면 학점은 제끼고 청춘을 만끽하자 동기들아 ㅎㅎ

#이한솔 앞으로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성동 시간이 엄청 빨리지나가는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서빈 1년 동안 잘 지내서 좋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문헌정보학과 파이팅!

#정승훈 2학기가 일추 끝나감과 동시에 추위가 내 가슴을 아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 년을 돌아보면 꽤나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오늘도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긴 대학생활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장했음을 느낀다. 아픈 일, 슬픈 일 만큼 즐거운 일, 기쁜 일도 많아서인지 지금의 나는 무척이나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다만 학교생활 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서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싶다.

#정주이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 한 것 같아서 좋다.

#진승현 벌써 1년이 지나가네요 작년 이맘 때 즈음에 수능을 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내년은 순탄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예은 벌써 곧 2학년이 된다고 하니 설레기도하고 걱정도 되지만 앞으로도 모두들 잘 부탁드려요!

#한수연 내년에 더 열심히 학교생활 해야겠다.

#하은정 학교를 다닌지 일 년이 다 되어가면서 통학하는데나 과제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2학기를 보내고 나니 나름의 재미를 찾은 것 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내면 좋을 것 같다!

#곽지혜 1학기 때보단 활동이 많아 기억에 남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축제도 즐기고 답사도 다녀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기말고사만 보면 1학년이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권지용 1학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네요. 대학에 막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네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 느끼고 다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김경민 2학기는 1학기보다 시도해봤던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좋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방학이 그렇게까지 기다려지진 않았는데 종강하는 날이 너무 기다려진다.

#김수연 2학기를 마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더 다양하게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2학기 때 참여한 학술답사로 전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과생 활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김유희 1학년이 끝나고 곧 2학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학교생활 해야겠다.

#김정환 벌써 1년이 지나간다. 연애편 밤새 놀던 게 엇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말이 확 느껴진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에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기에 후회는 크게 없다. 정신없고 재밌었던 1년 이었다.

#김차현 벌써 1학년이 끝나가다니 너무 슬프습니다.ㅠㅠ 내년에는 더 알찬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

#김호연 좋은 동기들이라 올해 정말 즐거웠어! 내년에도 잘 부탁해!

#나연희 2학기에는 축제와 답사 등 많은 행사가 있어 정신없었다. 답사가 최근이라 가장 기억에 남는데, 1박 2일로 현장체험을 하니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노서영 이번년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보람찬 학교생활이었다. 2학년 때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문서영 더 열심히 공부하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문준혁 2학기에 축제와 답사 등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벌써 2학기가 끝나간다는게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 곧 있으면 2학년이 되는데 올해보다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박나영 축제도 하고 답사도가고 재밌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힘들기도했지만 즐거웠다.

#박명현 1학기 때보단 활동적으로 보냈지만 한 것도 없이 시간만 간 거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래도 학술답사로 다녀온 기록관과 박물관은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 같다. 남은 기간은 알차게 보내고 전공에 대해서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박진범 2학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나의 1학년을 마치면서 많이 아쉬움을 느낀다. 1학기 때보다 열심히 공부도 안했고, 제대로 놀지도 못한 거 같다. 내가 이럴려고 대학생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박하영 이 학기는 일 학기보다 훨씬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것 같아요! 벌써 중간고사도 끝나고 학술답사도 다녀오고 지정인의밤도 별로 안남은것 같아 아쉽네요 ㅠㅠ 남은 두 달도 아무 문제없이 다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석재우 2학기는 1학기 보다 문헌정보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학술답사에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의미 있는 한 학기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송지선 수강신청은 미리미리 확인해두고 날짜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교 사이버강의 신청하면 15주차 고난을 이틀에 나눠서 몰아 받습니다. 토요일에 나오고 싶은게 아니면 안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연형모 재미있었다.

#유기람 학교 앞에 맛있는 데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맛있는 한해였습니다. 문화부에서 재밌었어요. 정부장님!!!! be 하요

#이수민 생각보다 2학기 때 과제도 많고 학교 행사도 있고 해서 바쁘게 보냈지만, 축제나 답사 등을 통해 보람차게 보낸 것 같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지 벌써 1년이 지나간다는 생각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 벌써 2학년이 된다는 생각에 나이가 먹는다는 자괴감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1년을 학업에 정진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학술답사와 학과튜터링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되어 좋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호)

#이현주 2학기도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더 알차고 재밌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임소연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게 있다. 사람마음 같은 것. 그래도 용기를 갖고 계속 부딪혀보려고 한다. 노력이 결과로 드러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고 10월말부터 11월까지 사회적으로 여러 일이 터져서 많은 생각을 했다. 결론은, 좀 철이 들어야 할 거 같다. 성인이 되고 민중도 나오고 했으면 좀 어른답게 끊임없이 바뀌면서도 변함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임수현 벌써 1년이 지나서 곧 2학년을 되기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학생활을 보내야겠다.

#전광준 일 년 한 달 하루 일분일초에 모든 건 변해. 오늘도 어제가 될 거야. 근데 난 지금 쓰는 이 글이 너희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길 원해!

#전정운 새로운 환경에서 소심한 성격 탓에 미처 친해지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이미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나 그렇지 못한 친구나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민수 벌써 2학기가 되었네요. ~서로 이제 모두들 친해진 것 같아요!! 시간 참 빠르네요. 아마 4학년까지도 눈 깜짝 할 사이 지나갈 것 같은데 우리 소중한 이 시간 재밌게 보내요~

#조강희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최연우 축제와 답사 등 행사가 많았는데 즐겁게 잘 마무리 된 거 같다. 내년도 기대되는 학교생활이다

#최준영 2학기에 답사도 가면서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내내 같은과 선배분들과 동기도 친절하셔서 도움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황선민 2학기에는 1학기 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다. 축제도 즐기고 학술답사도 다녀오면서 다양한 추억을 쌓게 된 것 같다.

달까요 2015년 '지정인의 밤'

기사: 15김남정
편집: 15전보경

2015년 11월 26일, 지식정보학부(이하 지정과)의 2015년도 마지막 행사인 '지정인의 밤' 이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에서 열렸다. 지정인의 밤은 지정과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연말에 지정과의 교수님들, 학우들을 비롯하여 졸업생들, 지정과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한 해를 같이 마무리하는 행사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이며 뜻 깊은 행사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수님 축사, 학생회장 축사, 회계보고, 특별영상, 제32대 학생회 인사, 제33대 학생회 인사 마지막으로 문화부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지정인의 밤 행사는 제 32대 학생회 평생지기(이하 32대 학생회)의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여지은(12학번) 학우와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슬기(13학번) 학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인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지영 교수님(지식정보학부 학부장)의 축사, 제 32대 학생회 학생회장인 여지은(12학번) 학우의 축사로 '지정인의 밤' 이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제 32대 학생회의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그 다음, 32대 학생회 집행 중 기획부가 준비한 동영상(지밤영상)을 보여주며 한 해 간 이루어졌던 다양한 행사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영상을 보면서 많은 학우들이 웃기도 하고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제 32대 학생회 인사로 1년 동안 고생했던 회장단들과 학생회집부 학우들이 소감을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많은 학우들이 한 해 동안 지정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었던 제 32대 학생회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제 33대 학생회 너나들이(이하 33대 학생회)의 소개가 이어졌다. 제 33대 학생회 학생회장 오세원(13학번) 학우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새로 당선된 회장단과 각 집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임명된 학우들이 소감과 각오를 밝히며 인사를 올렸다.

마지막으로 '지정인의 밤' 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문화부가 준비한 공연으로 '지정인의 밤'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지정인의 밤 행사에는 쉬는 시간 틈틈이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고, 학우들이 무대로 올라가 지정인의 끼를 보여주었다. 그 후 자리를 옮겨 '지정인의 밤' 행사에 맞게 밤이 늦도록 학우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지정소식]



문정 is 원들,



유쾌한 연애킴기

기사: 16김보민
편집: 16장광현

2016년 3월 26일, 새 학기의 시작을 맞이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우들은 부푼 가슴을 안고 연합MT를 떠났다. 이번에만 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네스코 평화센터로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여덟 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도시락을 먹은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엠티 장소에 도착했다.

도착 후 짐을 풀고 나서 모두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모였다. 처음 체육대회의 장을 연 종목은 줄다리기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시작됐다, 1조와 2조, 3조와 7조 두 조씩 연합해 경합했는데, 1조와 2조가 시작과 동시에 상대 조를 끌고 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자리를 바꿔 치러진 두 번째 시합에서는 3,7조가 이겨 땅이 경사진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았다. 마지막 최종 승리는 4조와 6조로, 시합에서 이긴 후 기쁨을 표출해냈다. 이후 피구, 미션달리기, 이어달리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션달리기에서는 '술자리에서 챙겨주고 싶은 여자 데려오기' 와 같은 알곳은 미션으로 시합에 참가한 남자 학우들을 당황케 했다. 7조의 한 남자 학우는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오기' 라는 미션이었는데, 평소에 의심을 사던 여학우를 데려가 주변인들의 환호를 받았다. 피구는 1조와 6조, 미션달리기는 1조, 이어달리기는 4조와 7조가 우승을 차지했다.



열띤 체육대회가 끝나고 모두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다. 식사를 끝낸 후에는 조별 장기자랑이 예정되어 있었다. 연합애티 1주일 전부터 각 조원들이 모여 열심히 준비를 해 기대가 많이 되었다. 모두의 기대 속에 문헌정보학과 꽃 문화부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로 장기자랑의 막을 열었다, 16학번 학우들은 우아하게, pick me up, 기대해, 별빛 달빛, 카탈레나와 같은 흥겨운 춤을 선보였다. 1조는 쿵트로 '술은 적당히 마시자'라는 교훈을 주었고 8조는 한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해 웃음을 선사했다. 춤과 쿵트뿐만 아니라 신나는 노래 무대도 있었다, 3조는 날 봐 귀순으로 흥겨운 무대를 보였고 마지막 순서로 4조가 빅뱅의 마지막 인사를 선보여 모두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장기자랑의 막을 내렸다. 열정적인 호응과 신나는 무대가 합쳐져 잊지 못할 애티의 밤이 되었다. 장기자랑을 마친 후 서은경 교수님께서 조별 점수를 발표하셨다. 장기자랑은 색시한 기대해를 준 6조, 체육대회는 1조가 1등을 차지하였다.

그 후 전공 교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서로를 소개한 후, 전공 교수님들의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후에는 각 조끼리 방에 모여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27일 오전, 아침을 먹고 숙소를 정리한 후 집에 갈 채비를 하였다. 서로 아쉬운 마음으로 다음 애티를 기약하였고 단체사진을 찍은 후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 연합애티 후 문헌정보학과와 한 학우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선배님들과 동기들, 더 나아가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다."라고 전하였다.



교수님은 LOVE... ♥

뜻깊은 스승의 날

기사 : 16문준혁

편집 : 16박하영

문헌정보학과(이하 문정과)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가르쳐주셨던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이 행사는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교수님들께 카네이션과 문정과 학생들이 직접 쓴 롤링페이퍼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스승의 날 며칠 전부터 문정과 학생회 실에는 다양한 색깔의 롤링페이퍼가 준비되어있었다. 메신저를 통해 스승의 날 이벤트를 전해서인지 문정과 학생회 실에는 많은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며칠간 많은 학생들이 롤링페이퍼를 쓰면서 글씨체가 좋지 않은 학생들도 롤링페이퍼에 담길 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은 최대한 정성 드려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6학번 학생들은 아직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듣지 못해 롤링페이퍼에 쓸 내용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해 15학번 이상의 학생들은 능숙하게 글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승의 날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주간학생들과, 야간학생들의 힘을 합쳐 서은경 교수님(인문대학장 겸임), 박지영 교수님(지식정보학부 학부장), 강순애 교수님(학술정보관장 겸임), 정경희 교수님, 박성재 교수님, 박희진 교수님 그리고 이호신 교수님께 드릴 롤링페이퍼를 완성할 수 있었다. 강순애 교수님은 학술정보관 관장실로, 나머지 교수님들은 연구동으로 찾아뵈었다. 미리 교수님께서 여유가 되시는 시간을 물어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자 교수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다. 교수님께 학생들이 방문한 이유를 설명 드리고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식의 전달 뿐 만 아니라 많은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또한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롤링페이퍼를 보고 감동하시는 교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학생들은 찾아가서 <스승의 은혜>를 불러 드렸다고도 한다. 전달식을 마치고 학생들과 교수님은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많은 시간을 교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의미 있고 훈훈한 시간이었다. 이 이벤트로 인해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더욱 활발해 졌다. 교수님 중에 한분께서는 학생들이 쓴 롤링페이퍼에 대한 답장을 학생들 마다 각각 보내시면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셨다.

또한 16학번 학생들의 경우 잘 알지 못했던 교수님을 직접 찾아뵈어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조금은 더 알아갈 수 있었다. 16학번 이시영 학생은 "스승의날 때 서은경 교수님께 카네이션과 롤링페이퍼를 전달하면서 교수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 우리가 소중하게 적었던 것들이 교수님께 전달되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를 자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대동제로 뭉친 한성대학교, 그 속 문정과

기사: 16김정한
편집: 16오민석

한성대학교에서 2016년 10월 12일 13일 14일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작년 축제와 달리 하루 더 축제를 즐길 수 있게 짜여졌다. 12일에는 동아리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거리노래방과 동아리 리 큐브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13일에는 방송국인 HBS에서 주관하는 낙산가요제가 7시, 상상관 203호에서 오후 6시 반부터 광정은씨의 '연애특강', 오후 8시 상상관 지하 농구코트에서 '클럽파티'가 각각 진행되었다. 낙산 가요제에는 가수 '딘'이 공연하여 더 열기가 돋아났다. 14일에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오픈마이크와 8시부터 메인무대에 '불빨간 사춘기', '민경훈', '사이먼'이 공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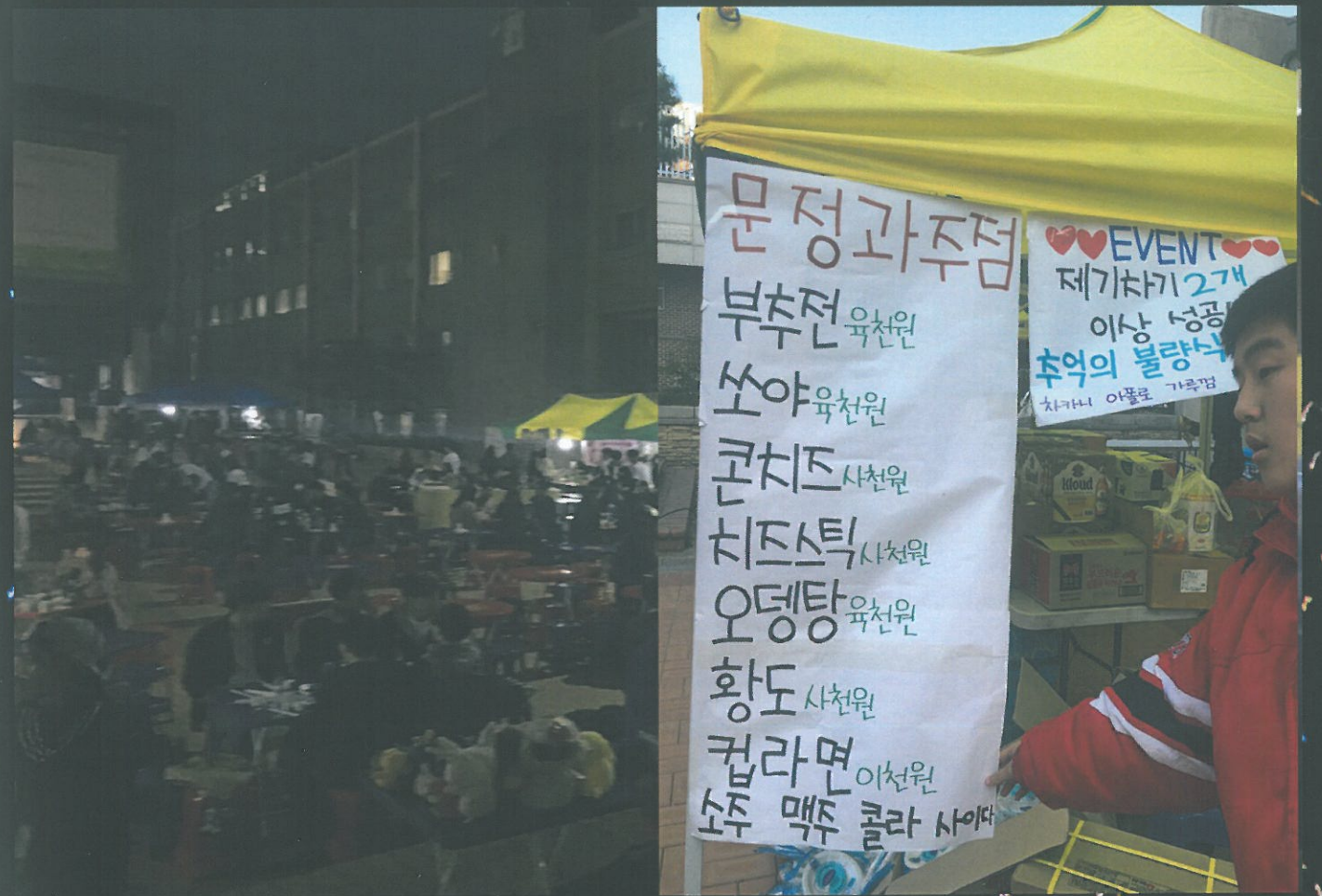
이날부터 단대별로 각각 우촌관 잔디밭, 벚꽃길, 상상관 운동장 등 여러 곳에 자리가 마련되었다. 마련된 곳에서는 각 학과와 동아리의 참여로 진행되는 학과별 축제부스와 주점 그리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번 축제는 상상관의 넓은 잔디밭과 함께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열띤 참여로 풍성한 볼거리와 재미로 이루어져 열기가 넘쳤다.



자연과학과(이하 문정과)의 축제 부스는 한성대학교의 우촌관과 미래관 사이 잔디밭이 있던 곳에 자리 잡았다. 조금 구석 쪽에 있지만 위치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이벤트와 주점의 열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예대와 인대의 부스들도

문정과는 13일, 14일 6시부터 12시까지 '문정 체육 대회'라는 컨셉으로 축제부스를 꾸몄다. 다 같이 쉽게 단합하고 즐길 수 있는 컨셉을 고민하다 나온 결과였다. 축제 부스에서 문정과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 체육시간에 입었던 편한 복장을 입고 요리와 서빙을 했다. 이벤트로 '제기차기'와 '진짜 보민이를 찾아라'가 있었다. '제기차기'는 제기차기 2회 성공 시 추억의 불량식품을 주는 이벤트였다. 불량식품으로는 '차카니', '아폴로', '별사탕' 등이 있었다. '진짜 보민이를 찾아라'는 요리와 서빙을 하는 문정과 학생들이 각자 'OOO 보민이'라는 명찰을 차고 진짜 이름이 보민이인 사람을 찾는 이벤트이었다. 이 역시 상품으로 추억의 불량식품을 증정했다.

밤이 깊어질 때쯤 문정과 교수님들이 어김없이 주점에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셨다.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에게 술을 따라주시며 문정과 학생들을 응원해 주셨다. 교수님의 응원으로 학생들은 더 힘을 받았다고 하였고 그 덕분인지 주점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감사했어요 너나들이'

기사: 16문준혁

편집: 15박하영



1. 일년동안 학생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 (보람을 느꼈을 때와 아쉬웠을 때)

15배지연: 2학년 밖에 안됐는데 부학생회장직을 맡아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제 부족함을 다 감싸 주시는 학생회장선배님과 작년 회장단선배님들 등 많은 분들께 감사함과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가들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준 학우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3오세원: 모든 행사들을 진행하기위해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뒤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 행사들을 학우 분들이 재미있게 참여해주셨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행사들에 생각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같아요. 항상 수고해줬던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싶네요.

때의 느낌과 하고 싶은 말

나서 15학번인 저에게 첫 후배를 맞이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정모, 예비학교, 해서 만난 16학번 학우 분들과의 만남은 좋으면서도 내가 벌써 선배가 되다니 라는 생각과 함께 년 동안 제가 많이 혼내고 화도 많이 냈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저서

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라 모든 것에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앞으로 대학 !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배들의 잔소리가 밋졌지만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주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다.

하고 싶은 말

‘한성지정’ 이나 자보 등을 통해서 우리 과 행사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한 행사들을 더 많은 학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습니다.

어디에서든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서비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서관이 록 함께 노력합니다. 학산 응원 하겠습니다

[자습소식]

34대 회장단 인터뷰

기사: 15김남정

편집: 15전보경



1. 자기소개 및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15정경은- 안녕하세요. 저는 34대 학생회 ‘도란도란’ 에서 정학생회장 15학번 정경은입니다. 2016년에도 학생회 집부의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정학생회장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불리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이번이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경험이라 판단되어 정학생회장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리더’ 의 자리에 선 것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16노서영-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16학번 노서영입니다. 저는 16년도 2학기부터 1학년 야간과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학과에 관심도 생기고 학우들과 일을 하나하나 해결에 나가는 것에 보람도 느끼게 되어 17년도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6안상현-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부학생회장 16학번 안상현입니다! 1학기 때부터 2학기까지 과대표를 하면서 과에 애착이 생기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서 부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제 34대 학생회 이름과 뜻은 무엇인가요?

제 34대 학생회 이름은 ‘도란도란’ 입니다. 도란도란의 뜻은 ‘나직한 목소리로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이라는 뜻으로 학생들과 벽이나 허물없이 편하게 소통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정한 이름과 같이 항상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학생들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3. 주요 공약과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 공약은 ‘과실개선’ 입니다. 2016년 2학기 과실이 진리관에서 우촌관으로 이전되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좋아진 만큼 테이블 위에 쓰레기가 며칠 동안 치워지지 않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개선현도를 하겠습니다. 과실의 개관과 환경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제33대 학생회 집부 이야기



기사: 15김남정
편집: 16오민석

<기획부>

기획부는 개강 전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신입생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였으며, 연합MT의 장소를 답사하여 안전한 연합MT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개강파티 장소를 섭외하여 지식정보학부 학우(이하 지정인)와 문헌정보학부 학우(이하 문정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시험기간에 학우들을 위해 간식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장 15정서영

33대 학생회 너나들이 기획부 부장 15학번 정서영입니다. 처음 16학번 후배들을 만나서 어색했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왔네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학생회라는 활동덕분에 과 생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의 부탁으로 같이 기획부를 이끌어 갔던 차장 이태용에게 너무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 하고 싶고, 기획부 16학번 동희, 상현, 민수, 소혜, 은지, 수연아 ㅎㅎ 활동도 열심히해주고 말도 잘 듣고.. 이 못난 부장 잘 따라 와줘서 너무 고마워!! 기획부 답사 갔다 와서 회식했을 때 정말 재밌었는데 다음에 회식 한 번 더 하자 ㅎㅎ그리고 앞으로 기획부를 이끌어 가줄 예비 부장 차장인 소혜 은지야!! 책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동이었어.. 앞으로도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고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ㅎㅎ그리고 33대 학생회 너나들이와 같이 일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ㅎㅎ 같이 많이 고민해주고 같이 해결해갔던 다른 집부 부장 차장들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즐거웠다는 말하고 싶어요 ㅎㅎ 다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 파이팅!



차장 15이태용

기획부 차장을 맡게 되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해나갔던 것들이 많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불평불만 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었던 16후배들에게 많이 고맙고 기획부를 잘 이끌어주었던 부장 정서영에게도 고맙다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후배들이 새로운 부장 차장을 맡아 더 좋은 학생회를 만들어 주고 저희 과를 많이 발전 시켜주길 바랄게요! 너나들이 학생회분들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도활부>

도활부는 1학기에는 국회도서관 탐방을 하였으며 학기 도중 동산초 장서점점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동안 태백으로 장서점점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2학기에는 '해랑사리우' 동아리와 함께 연합하여 보문동 시장 상인을 위한 책배달 서비스 시행 및 이동도서관 시행을 격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구 북 페스티벌과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장 15이경선

작년 그림비에 도활부 부장으로서의 각오 같은 것을 썼을 때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소감문을 쓰게 되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하네요. 우선 새터부터 지밤까지 준비하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던 너나들이 학생회 임원들과 올해 유독 많은 도활부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같이 고생했던 동원 오빠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도활부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들 때가 정말 많았는데 동원 오빠는 물론이고 학생회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정말 고맙았어요.ㅠㅠ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준비했나 싶은데 그만큼 부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네요! 2016년 한 해 학생회 활동과 도활부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 모두 감사드리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무리 잘해봅시다! 파이팅!

약은 '간식사업 문제개선'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학생회는 1년에 총 3번 간식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우분들의 치지 못하는 간식과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항상 간식이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저희는 간식의 질도 높이고 보 문제도 보완하여 더 많은 학우분들이 간식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약은 '신입생과 재학생간의 교류 활성화' 입니다. 2017년도부터 기존의 과가 트랙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보다는 의 유대감이 많이 없어질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학생회를 중심으로 과가 번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모임, 춤모임, 문헌정보학과 특성을 살린 모임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의 모임을 만들고자하는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는 학생회, 회장단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장단 모습은 무엇인가요?

회 이름인 '도란도란' 의 의미처럼 벽이나 허물없이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를 지향하며 학우분들을 포함해 학생회 가지 불편함 없이 건의사항을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선하는 모습이 회장단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회장단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에서 보아왔을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과내 행사나 기획 등이 지금 다시 돌아보면 정말 힘들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1년 동안 학과가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 하셨을 선배님들의 열정과 새로 학교에 들어온 16학번들이 의견을 있어 편하게 배려해주신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학생회, 회장단으로써 앞으로의 각오와 다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2017년도부터 기존의 학과가 트랙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금보다 학생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34대를처럼 '소통' 중시하며 1년동안 문헌정보학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 학우분들의 두 발이 되는 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처음 출마를 결정할 때만 해도 제가 과연 이 자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우분들께서 주신 리를 받게 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하던 일들과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 또한 많겠지만 학우 여러분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제33대 학생회 집부 이야기

차장 15하동원

까마득할 것만 같았던 한 해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된 한편,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도활부 차장을 맡았을 때 했던 다짐을 떠올려봤습니다. 그 다짐을 전 나쁘지 않게 이룬 것 같지만, 자세한 건 도활부를 올해동안 보아온 분들이 평가하겠지요. 이왕이면 좋은 평가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해 동안 무탈히 학생회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준 임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장 경선이에게는 너무 고맙습니다.

<문화부>

문화부는 연합MT와 지정인의 밤에서 멋진 공연을 준비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많은 학우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부장 15정경은

작년 지정인의 밤에서 문화부 부장으로서 소감을 말한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가 끝나 그림비의 소감을 실고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습니다. 문화부를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의 메이트인 차장 강희언니가 있었기에 별 탈 없이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강희언니한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인 15학번 문화부 친구들, 잘 따라 와준 16학번 문화부 친구들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부가 문정과의 꽃이 될 수 있게 내년 부장, 차장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나들이 학생회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차장 15김강희

안녕하세요, 문헌정보학과 제 33대 학생회 문화부 차장 김강희입니다. 연초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했던 차장 생활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합니다. 힘들었던 적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부장인 경은이와 많은 후배들 덕분에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문화부가 문헌정보학과와 즐거움을 담당하는 꽃 같은 부서가 되길 바라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전부>

선전부는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공지사항, 행사 등 소식을 전해주며 관리하고 1년 동안 학과에서 진행되었던 행사들을 많은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료를 제작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부장 15강현주

안녕하세요. 제 33대 학생회 너나들이 선전부 부장 강현주입니다! 부장이라는 직책이 부원들을 이끌어 주고 한 부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전부 부장을 도맡았을 때 부담감이 컸던 건 사실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 많이 들었지만 작년에 선배들이 하셨던 것, 저희를 이끌어주셨던 기억을 떠올려 차츰차츰 하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적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부원일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돌이켜보니 작년 학생회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행사가 많아 자료를 쓰는 횟수가 늘었는데 저희 선전부 부원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아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 항상 미안한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굳 말없이 항상 퀄리티 높은 자료를 써준 부원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장 도희도 항상 옆에서 도움을 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차장도희랑 선민이 지혜 차현이 서영이 일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짱짱 고마워!!>_<♥

전송



2016년 제33대 학생회 집부 이야기

차장 15곽도희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5학번 선전부 차장을 맡은 곽도희라고 합니다. 1년간 학생회 활동을 하며 많은 활동들을 했고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후배들과 친해질 많은 기회들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정모, 2차 정모를 통해 후배들이 학교와 수강신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새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연합MT에서 선배님들과 동기들과 후배들과 체육대회도 하고 저녁에는 문화부와 후배들의 공연도 보는 등 친해질 시간을 가져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일일호프도 하였는데 다른 활동들에 비해 준비과정이 많아 힘이 들었지만 학생회 모두 끝까지 노력했고 후배들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에 참여를 잘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에 참여하며 같이 준비하느라 노력한 학생회 다들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남은 축제와 답사 등도 다 같이 파이팅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편집부는 1년 동안 지식정보학부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행사와 지정인들과 문정인들의 특별한 소식들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고 많은 지정인들과 문정인들의 참여로 좋은 기사들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정리하여 편집과정을 거쳐 2016년도 그림비를 제작하였습니다.

부장 15김남정

편집부 부장을 맡은 지 벌써 1년이 지나 소감을 쓰게 되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1년 동안 차장인 보경언니와 편집부를 잘 이끌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못할 것 만 같았던 그림비도 잘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고생했던 한 해 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원과 부장이라는 직책은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겹이 너무 컸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작년 부장 차장인 주영선배와 아영선배 덕분에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툴렀던 저를 잘 따라와 줬던 기사팀 소희, 보민이, 정한이, 준혁이 너무 고맙고 항상 기사팀의 기사를 받고 편집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고 내가 많이 못챙겨줬다고 생각하는 편집팀 민석이, 하영이, 석진이, 광현이 너희 덕분에 좋은 퀄리티의 기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너나들이 학생회 여러분들 덕분에 더 좋은 기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부탁했을 때 선뜻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편집부가 더욱 더 흥했으면 좋겠고 매년 발전하는 그림비의 모습을 기대할게요!

차장 15전보경

안녕하세요! 편집부 차장 전보경입니다. 부원으로 편집부에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차장 자리도 후배들에게 넘겨야 할 때가 왔네요! 많이 서투르고 막막할 때 옆에서 도와준 부장 남정이에게 가장 고맙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잘 믿고 따라 와준 우리 편집팀 민석, 광현, 하영, 석진이 고마워! 또 편집 할 수 있게 기사 잘 써준 소희, 보민이, 정한이, 준혁이도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집부 아이들을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큼니다. 편집부 차장으로서 즐거웠고 행복했던 2016년이었어!! 마지막으로 너나들이 학생회!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전송

2017 차기 부장, 차장 소감

기사 : 16김소희

편집 : 16강석진

<기획부>

부장 16윤소혜: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정과 기획부 부장을 맡게 된 16학번 윤소혜입니다. 대학생 새내기로 들어온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학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2학년 기획부 부장이 된다는 사실 역시 아직은 먼 얘기 같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학생회 임무를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드시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해왔고 이제는 제가 그 일을 이어 받아 문정과 의 모두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직은 걱정부터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문정과 선배님들과 동기들 모두 즐겁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성실한 일꾼이 될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직접 부딪히고 열심히 배우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장 16이은지: 우선 많이 부족한데 저를 믿고 차장자리를 맡겨주신 태웅 선배님과 서영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만큼 부장인 소혜를 도와 학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획부 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저희 과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 기획도 많이 하겠습니다. 처음 기획부에 들어왔을 때 실수도 많이하고 선배님들께 꾸중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부를 이끄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배님들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학생회에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활부>

부장 16나연휘: 안녕하세요. 도활부 부장을 맡게 된 나연휘입니다. 제가 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이왕 부장이 된 만큼 2017년 도활부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도서 봉사활동과 북페스티벌에 참여하겠습니다! 다른 도활부 부원들도 함께 도와주셔서 더 성장하는 도활부가 되기를...! ㅎㅎ

차장 16이현주: 처음엔 생각하지 못한 역할을 맡았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새롭게 구성된 학생회임원들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의 도움도 조금씩 받아가면서 도활부도 나부장과 함께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16학번 파이팅!!

<문화부>

부장 16유가람: 경은언니와 강희언니가 이번년도 문화부 부차장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 주가 되어 준비한 첫 문화부 지바공연이었는데 잘 끝나서 정말 다행이구 호응 많이 해주셔서 감사함다~~~앞으로 부장으로써 문화부를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차장 16전광준: 어찌다보니 차장이 되긴 했는데 새로 들어올 17신입생들을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장인 가람이를 도와 문화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내년에 있을 공연들도 올해 선배들이 한 것처럼 멋지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차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화부 사랑합니다.

<선전부>

부장 16김차현: 안녕하세요. 16학번 김차현입니다. 부장이 될 줄 몰랐는데 막상 부장이라고 하니까 좋네요^^ㅎㅎ. 1학년인 지금은 자보 쓰는 일만 하고 있는데 부원이 아닌 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학생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차장 16황선민: 매번 무슨 그림을 그리고 어떤 문구를 써야할지 고민하면서 자보를 썼는데 다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선전부를 통해서 문헌정보학과 의 다양한 공지사항과 소식들을 전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여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어서 기뻐요~차장이 된 만큼 더 센스 있고 눈에 확 들어오는 자보를 써 붙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지만 선전부의 노력을 알아주세요...!☆감사합니다.

부장 16김소희: 편집부에 들어오게된게기가 제가 학생회를 한 결과가 책으로 남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림비에 넣을 기사를 쓰던 게 엇그제 같은데 제가 편집부에 부장이 된다는 것이 아직은 실감이 안나요. 하지만 내년에 본격적인 부장생활을 하다보면 부장의 무게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편집부 잘 이끌어 나갈게요!

차장 16박하영: 처음에 편집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학과에 의무감을 가지게 되고, 학과에 행사가 생길 때마다 이것도 책자에 넣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학년이라 시키는 것만 해서 크게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차장이 되면서 의무감이 더 커진 것 같네요~앞으로 남은 일 학기도 열심히 일하고 내년부턴 선배들처럼 잘 이끌어가겠습니다!화이팅~~

<>

학습답사, 신나게 학습하고 추억만들기

기사: 16김보민

편집: 15전보경



2016년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문헌정보학과 학우(이하 문정인)들은 2016년도 답사를 다녀왔다.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과 아시아 문화전당, 화순의 운주사를 탐방했고 교수님들과 180여명의 문정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답사는 문정인들이 이론으로만 배우던 기록유산을 실제로 보고 들으며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아침 8시, 문정인들은 학교에 모여 전라도 광주로 향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시 출발하였고, 학교에서 출발한지 4시간이 경과했을 때 광주에 도착하였다. 견학은 인원이 많은 관계로 1,2호 버스를 탄 학우들과 3,4호 차를 탄 학우들로 나뉘어 로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 견학한 곳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아시아 문화전당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록물을 증언하는 시설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곳에 들어섰을 때, 직원분이 문정인들을 맞이하며 기록관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그 후 1층부터 6층까지 직원분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살펴보았다. 보통 5층 수장고는 일반인들의 관람을 제한하지만 문정인들은 살짝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아시아 문화전당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관이다. 예술장르 13개 주제를 잡아서 13개의 주제관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2002개의 오르골의 불협화음을 들으며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외피들 등 여러 가지를 보았다. 그 후, 첫째 날의 견학을 마무리하며 '옥수정' 이라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였다.

문정인들은 숙소로 도착한 후 강당에 모였다. 간단한 개회식을 갖고, 조별로 팀을 나누어 퀴즈를 맞혔다. 전공과목에 관한 문제와 아이돌에 관한 문제, 견학한 장소에 대한 문제 등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문정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뽐내며 문제를 맞혔다. 아이돌 문제를 맞히는 시간에는 몇몇 학우들이 앞으로 나와 귀여운 아이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당 안에서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각 조별로 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져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강당 안의 시간만으로 아쉬웠던 문정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며 아침을 맞이하였다.

답사 둘째 날 아침이 밝자 문정인들은 다음 답사 장소인 운주사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운주사에 도착하자 주황빛으로 물든 낙엽 잎들이 휘날리며 문정인들을 맞이하였다.

우리 불교의 깊은 혼이 서린 운주사는 우리나라의 여느 사찰에서는 발견 할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불사를 한 불가사의한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는 거대한 와불이 누워있는데 와불이 벌떡 일어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올라가는 도중에 일주문을 지나게 되었는데 특이점이 하나 있었다. 일주문에는 '영귀산운주사' 라고 적힌 현판이 붙어 있는데 그 중 '운' 자의 '구름 운' 자가 두 개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비를 더 가져다 달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안내자분의 설명을 들으며 올라간 운주사에서 문정인들은 석탑을 보고 친근한 석불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관람이 끝난 뒤 문정인들은 '옥수정' 에서 식사를 하고나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것으로 2016년 문헌정보학과 학술답사가 종료되었다.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도화부,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기사: 15김남정
편집: 16박하영

도화부는 2016 여름방학 도중 태백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또한 도화부 학우들뿐만 아니라 문정과 학우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봉사활동을 다녀온 15하동원, 16나연휘, 16박하영 학우들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다음에도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 방학 도중에 태백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오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얘기해주세요.

15하동원 : 저희가 태백까지 가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기관에 있는 장서를 분류, 등록하고 절반가량의 라벨지 없는 장서에 라벨지를 부착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청구기호의 부여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프로그램의 진행입니다. 독서 프로그램은 2가지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프로그램은 '책갈피 만들기'이고, 2번째는 '삽화 색칠하기'입니다. 단순히 개인당 하나의 삽화 색칠이 아니라, 하나의 삽화를 a4로 각 부분을 나누어 분할 인쇄를 하고 모두가 모여서 그 큰 하나의 삽화를 완성해나가는 프로그램이죠.

16박하영 : 2박3일 동안 시간을 정해 아무렇게나 놓인 책에 '막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청구기호를 만들어주어 찾기 편하게 정리하고 어린 친구들에게 책갈피의 용도를 알려주고 같이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16나연휘 : 저는 태백 봉사활동 첫 번째 팀으로, 2천여 권의 도서 분류 및 전산 작업과 태백 신나는 집 아동센터에서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을 했습니다. 2천여 권이라고 해서 긴장하면서 태백에 도착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책 양이 많지 않아서 작업하기 수월했습니다. 먼저 쓰지 못할 만한 낡은 책들과 고쳐 써야 할 만한 찢어진 책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10가지 주류로 나누어 전산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산 작업에는 초보자도 쉽게 쓸 만한 '막둥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막둥이 프로그램에 책 뒤에 있는 ISBN을 입력하여 서지정보를 찾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행히 사용 가능한 컴퓨터가 4대나 있어서 전산작업을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전산작업을 마치는 대로 서가에 정리된 책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였고, 원래 계획을 완벽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2박 3일 중 둘째 날에는 도화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준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 했습니다. 책갈피를 직접 만들고 코팅하여 의미 있는 자신만의 책갈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을 참여해주어서 지도 뿌듯하게 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 도화부가 계획한 봉사활동이던데 어떤 취지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나요?

15하동원 : 이번 태백에서의 프로그램은 도화부 내에서도 야심차게 준비해왔습니다. 명확히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달려갔던 것은 아니고, 다양한 목표가 어울려져 기획되었다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먼저, 봉사활동이란 것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들었던 애로사항이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활동해요!'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왕 할 봉사활동 직접 다해보면 더 재미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화부에서 기관과의 접촉 이후, 모든 것을 처음부터 기획해왔습니다. 단순한 배가와 목록작업도, 기관에 전문 사서들이 없어서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와 '목록을 어떻게 등록할 것인가' 등을 교수님들을 뵈어가며 준비해갔고, 독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짜서 실행해왔습니다.

또, 2팀으로 쪼개지긴 했지만, 도화부가 준비한 소규모의 애프터 분위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친목 도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서 외의 인원도 받고, 저녁에는 철저히 일을 멈추고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소정의 참가비만으로 의식주에, 교통비도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바로 색다르고, 재미나고, 문헌정보학과다운 프로젝트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3. 봉사활동을 하고 난 후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15하동원 : 총괄적인 저의 소감은, '환상적이야!'입니다. 막막하게 시작한 처음부터 호응을 맞춘 부장 경선이와, 15 동기 부원들과의 단합은 행복한 시간이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여러 일들은 신비로운 곳을 개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한 독서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교감하며 친해지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순탄치 않은 길에 몸은 지치고 피곤했으나,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틈만 나면 곳곳에 자랑할 정도로요.

16박하영 : 문헌정보학과에 1학기 동안 다니면서 배운 것들의 이론은 정말 어렵고 외당지 않았는데 실제로 직접 보고 적용해보니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단기간에 많은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일동안 여러 활동을 하며 평소에 얘기 나눌 기회가 없는 초등학생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선배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16나연휘 : 중학생 때부터 매년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며 도서 분류 작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책들을 정리하는 것은 처음이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나 도활부 선배님들과 함께 가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산작업도 처음 해봤는데 저 같이 사서가 아닌 대학생도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끝내고 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된 책들을 보며 제가 직접 해냈다는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처음 태백 봉사활동을 신청할 때에는 힘들고 지루할까봐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막상 가서 활동하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붙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봉사활동 중 기억 남는 일은 어떤 것인가요?

15하동원 : 의도치 않게 제가 있던 A팀은 프로그램 속 작은 프로그램을 맛보았습니다. 사실 짧막하지만 유익한 휴식시간에 가깝네요. 무엇이나면, 박성재 교수님께서 대학원생 시절에, 학부생과 다른 대학원생들과 9박 10일 동안 저희가 간 것처럼 봉사활동을 하였던 작은 도서관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쪽 관장님께서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립 당시와 어떻게 도서관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내부도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고록 배려해주셨습니다. 그곳은 지역 아이들이 직접 설계도면에 참가했다고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계단 밑의 비밀의 방이라던가, 신비의 다락방 같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많았습니다. 틀에서 벗어난 도서관 건축을 보아서 그런지 그곳이 계속 생각이 나네요.

16박하영 : 동네 주민들이 책을 기부해 만들어진 도서관에 간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책이 있어 특별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생각을 반영해 만든 공간들이 있었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작은 다락방이 있어 조용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아주 오래되고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만화가 많은 만화책방이 있었습니다.

16나연휘 : 아이들과 함께한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을 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30명의 아이들을 5명인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에 앞서 소개와 간단한 프로그램 설명을 할 때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서로 떠들기 바빴던 아이들이 막상 책갈피를 만들기 시작하니깐 너도 나도 책을 들고 와서 마음에 드는 문구나 그림을 찾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고민하는 여자아이들에게 복숭아를 그려주니 모두 좋아하며 다 같이 복숭아를 그리는데, 아이들의 순수함이 너무 귀여워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종이 뒷면에 이름까지 새겨 코팅을 하여 책갈피를 완성했을 때 조그만 손에 하나씩 책갈피를 들고 자랑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5. 이런 활동이 다음번에도 있다면 참여할 생각인지 혹은 동기친구들에게 권할 생각이라면 어떤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지.

15하동원 : 이런 활동이 기획되어진다면, 그 어느 활동보다 우선시 참여할까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에 저는 참여할 겁니다. 바로 경험과 추억이라는 보상입니다. 학부생일 때 해볼 일 없는 일들도 하나둘 해나가는 경험과 재미, 쌓여가는 추억들이죠. 박성재 교수님께서 그간 이런 프로그램을 그토록 제안하신 이유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우리 과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들이 너무 산더미란 것을 깨닫고, 그 중 일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저희 도활부에서 또 재미난 기획을 하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6박하영 : 다음에도 참여해 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16나연휘 : 다음번에도 또 참여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처럼 문헌정보학과에 희망하여 온 친구라면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도서 분류 및 전산작업의 현장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경험 뿐 아니라 재밌게 놀기 위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까지만 봉사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 시간으로 보드게임과 넉넉한 간식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활동이 있다면 과 동기들과 다 같이 가서 재밌게 봉사활동하고 놀고 싶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만들어진 인문학

기사 : 16김정환

편집 : 16강석진

지난 5월 24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1층 Digital Learning Center(이하 DLC)에서 25대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이 개최되었다. 25대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은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한성대학교 총장님의 답사로 이어졌다. 이후 1부에서 다독상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 저자강연, 질의응답, 저자사인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저자와의 만남의 주인공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시민의 교양’의 저자이신 채사장 작가님이셨다. 채사장 작가님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다. 필명인 채사장은 지식 가게의 사장이라는 뜻으로 지으셨고, 2015년 팟 캐스트인 지대넓얇의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JTBC 김제동의 토크 투유에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로 재간을 드러내셨다. 이번 만남에서 채사장 작가님은 ‘시민의 교양’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은 각 목차에 대해 짧은 설명을 하시면서 저서에서 채사장 작가의 세계관을 언급하셨다. 채사장 작가님은 저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기술하셨다. 나를 세계에 맞추는 삶과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 작가는 두 이분법적인 사고 세계관을 내세우고 있지만 독자가 시대를 읽어 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하셨다. 끝으로 강순애 학술정보관장님은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이 만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볍고 재미있는 인문학 교양을 통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셨다.

강연은 채사장 작가님의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작가님은 제대 후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자본가가 되자는 생각을 하시고 퇴사 후 인터넷 의류업체, 화장품 사업, 노랑진 입시논술 강사, 주식투자자 등 여러 일들을 하셨다. 이후 별다른 일 없이 놀다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들을 녹음하면서 지금의 팟캐스트인 ‘지대넓얇’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래 강연의 주제는 ‘시민의 교양’ 6번째 주제인 정의에 대한 것이었지만 작가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주제가 사회구조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채사장 작가님은 사회가 언제부터 독서, 인문학에 집중하였는지 생각해보자는 주제로 메인 강연을 시작하셨다. 작가님은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든 것이라 하셨다고 그 이유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다. 자본가의 문화가 절대 노동자의 문화보다 우수하지 않고 각 문화마다 개성이 있지만 우리는 자본가의 문화가 노동자의 문화보다 더 우월하다 믿고 있고, 이에 따라 부유층의 문화가 강제되는 것이라 하셨고 결국 사회가 강제하는 것이라 설명하셨다. 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고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결국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 하시면서 경쟁의 단계가 처음엔 학벌 다음엔 영어, 스펙, 외모 등으로 경쟁하다가 인문학이 현재 단계라고 말하셨다. 작가님은 인문학적 정신은 저항이며 모든 사람들이 지목하는 길은 아니라 말하며 인문학에 대해 저항하고 거부하자하셨다.

작가님은 자신의 욕구가 사회에 의해 강조되었나? 일자리의 문제를 인문학에 회색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의심하고 사회에 저항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강연을 마치시고 질의응답을 시작하셨다. 질의 응답에는 작가님 팟캐스트 인기비결부터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런 많은 지식을 접하셨는가, 또 사회에 저항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고 작가님은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셨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추첨으로 50명을 뽑아 저자 사인회를 진행하셨다. 저자사인회를 끝으로 25대 학술정보관 문화행사인 저자와의 만남이 마무리 되어졌다.



기사: 15김남정
편집: 16오민석

2016년 9월2일(금)부터 2016년9월3일(토)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도서관이 개최한 서울 북 페스티벌이 벌써 9회를 맞이하였다. 지정인(이하 지식정보학부) 15하동원 학우는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여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1. 안녕하세요. 서울 북 페스티벌에 대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5하동원 :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에 재학 중이며, 도환부 차장을 맡고 있는 15학번 하동원입니다.

2. 서울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으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15하동원 : 서울 북 페스티벌에 대해 작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참가하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성미가 가만히 있지 못하다보니, 이런 활동들이 재밌을 것 같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3. 서울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15하동원 : 주관은 서울시청도서관이고,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여러 도서관들이 같이 참여하였고, 이번이 9회째이며 매해 협력기관이 정해집니다. 또한 테마나 취지도 다르다고 합니다.

4. 이번 서울 북 페스티벌이 벌써 9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 북 페스티벌의 테마는 어떤 것이었고 어떠한 목적과 취지를 갖고 진행되었는지 소개해주세요.

15하동원 : 이번 제 9회 서울 북 페스티벌의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이 테마에 맞추어 여러 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다만, 작년과는 많이 다르게 운영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번 축제의 취지는 이용자들이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서들에게 질문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가는데 익숙지 않는 현재에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취지인 셈이죠. 그래서 재미 위주의 체험형 부스보다는 소통을 하는 부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이 도서관으로 제작된 '축제 도서관'이라는 부스였습니다. 로봇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구비하고 사서들이 대기했죠.

5.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15하동원 : 제가 맡은 역할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시청광장에서 충분히 축제를 즐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계에 일하는, 혹은 출판업계에 일하는 도서관인용과 일반 시민용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6. 이번에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15하동원 :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상처 받는 일도 많으면서도 우리 도서관 쪽에 깊은 관심을 주는 일반 시민들도 많아서 뿌듯하기도 하였고, 각 부스들도 배려 넘쳤죠. 로봇이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또, 야밤의 달빛독서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북라이트와 조명을 비추며 보는 그 분위기는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독일 학교의 사서교사로 일하는 외국인 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눌하게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려 한국인이면 5분이면 끝날 조사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며 하다 보니 몇 배나 걸렸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고 나니, 다른 나라의 도서관계에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서 신기하면서도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7. 내년에도 서울 북 페스티벌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혹은 동기, 선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지,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5하동원 : 내년에도 참여하겠다면, 당연히 yes라고 대답할 겁니다. 다만, 이번처럼 설문조사 같은 걸 시킨다면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루하거나 재미없어서는 아니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설문조사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인턴 사서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축제 몇 달 전부터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더군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렇게 인턴사서로서 축제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런 구조로 일이 이루어진다면요. 혹시 이 인터뷰를 깊게 보는 선배, 후배 혹은 동기가 있다면, 내년에는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배정받든 정말 큰 경험으로서 작용할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학교 외의 여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졸업생들을 볼 수 있는 기회라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축제 분위기에 물들어서인지 봉사이지만서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해외봉사! 그것은 무엇인가요? ?

기사: 15김남정
편집: 16장광현

1. 어느 나라로 해외봉사를 가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정보학부 15학번 이경선입니다.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 21기 아띠아띠 팀은 올해 7월 카자흐스탄과 몽골 두 나라로 해외봉사를 떠났어요. 제가 속한 B팀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국립 58번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떠났습니다.

2. 해외봉사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막연히 해외봉사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봉사단을 찾아 보니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해외봉사단들이 있었는데 신청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해외로 봉사를 나가는 것이다 보니 믿고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꺼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동아리 선배분이 한성대학교 해외봉사단을 통해 해외봉사를 다녀왔는데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정말 좋은 경험이니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라고 추천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해외봉사를 하기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자기소개, 특기, 지원동기 등에 대해 기술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 모집에 합격하면 면접을 보게 돼요. 면접은 조별 면접으로 5분 정도 진행되고 서류에 기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됐어요.

4. 해외봉사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였나요?

해외봉사단으로 선발이 된 후부터 7월에 봉사를 떠나기 직전까지 약 3개월가량 교육봉사와 문화공연을 준비했어요. 교육봉사는 한국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5가지 교육을 준비했는데 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직접 준비했어야 했어요. 봉사단 전원이 현지에서 모든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과학팀장이었지만 다른 교육의 커리큘럼까지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문화공연은 한국을 알리는 태권도, 부채춤, 탈춤, K-POP 공연을 준비했어요. 봉사단원 모두가 완벽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해 일주일에 3번씩 3개월간 시험기간에도 매주 모여 열심히 연습했어요. 서투른 실력으로 부채춤을 연습하느라 부채를 퍼다 손에 가시가 박히는 일도 허다했었고, K-POP을 준비할 땐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는 몸 때문에 같은 동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십 번 반복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3개월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지에서 멋진 공연을 해낼 수 있었고 박수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뿌듯했었어요.

5. 해외봉사 기간 중 기억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해외봉사를 떠나기 전 몽골은 내륙에 있는 나라라 물이 부족해서 잘 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물티슈를 200장 넘게 가져갔었어요. 다행히 제가 봉사를 간 국립 58번 학교는 준비해 간 물티슈가 무색해질 정도로 수도물이 팔팔팔 아주 잘 나왔고 샤워장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물이 잘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차가웠어요. 물이 정말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꼭대기에서 샤워를 한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가워서 모두들 샤워를 할 때면 소리를 지르곤 할 정도였어요. 문제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빨래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소리 지를 정도로 차가운 물로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심지어 저는 빨래를 하다가 손이 너무너무 시려서 '이러다 혹시 손가락이 너무 차가워서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중간에 빨래를 하다 말고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본 적도 있었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만져본 물 중에 가장 차가웠던 것 같아요. 따뜻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6. 해외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해외봉사를 하며 처음 해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소하게 생각하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꾸준히 모여 성실하게 활동했던 것도 처음이었고, 문화공연, 교육 준비, 해외여행,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막내 등 다 처음 해보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이고 혼자 신청했었기 때문에 두렵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준비기간과 현지에서의 봉사와 문화 탐방을 하며 쌓았던 추억을 되돌아보니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많이 즐기고 아이들처럼 더 많이 놀아줄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돌아왔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ㅎㅎ

7. 해외봉사를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사서공무원 ? 그것이 알고싶다

기사: 16김소희
편집: 16오민석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한성대학교 미래관 지하 102호에서 문헌정보 취업프로그램인 사서직 공무원 시험 대비 특강이 개최되었다. 미래관 강의실에는 사서직 공무원을 꿈꾸는 1학년부터 졸업을 앞둔 3학년, 4학년 선배님들과 졸업하신 선배님들까지 30여명의 사람으로 채워졌다. 이 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박희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 특강은 공무원시험의 모든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선배나 후배가 누가 있는지를 알고 서로 알고 지내며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라고 말씀하셨다. 본격적인 특강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일어서서 자신의 학번과 이름을 소개하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한 다음 자신은 노랑진 강사처럼 강의를 뛰어나게 할 수 없다는 교수님의 재치 있는 농담으로 편해진 분위기와 함께 특강을 시작하였다.

이 특강은 사서공무원 특강이지만 9급 관련 정보학 기출문제중심으로 한 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무조건 알아뒀야 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2급 정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사서직 공무원인데 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서울시 9급 사서직 공무원시험인데,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경쟁률이 낮은 지방직 9급 사서직 공무원도 특강에 참여한 몇몇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번 8월에 국회도서관 9급 사서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치뤄질 예정에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다시 생긴 것이고 경쟁률도 은근히 낮은데다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라서 교수님께서 지원해보라고 추천하셨다. 박희진 교수님께서 최근 국회도서관 9급 사서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출신학교 목록들을 보여주었는데 우리 학교학생들은 2005년, 2010년에 합격했다며 거의 5년 주기로 합격자가 나온다고 작년에는 시험이 없었으니 이번년도에는 우리학교에서 합격자가 한명은 나올 것이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다. 또한 교수님이 종종 사서직 공무원시험 면접을 봐달라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는데, 연락이 오는 이유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꼭 시험을 잘 봐서 면접을 보러 가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꼭 붙을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자고 말씀하셨다.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는 정보학으로 2학년때 부터 배우게 될 부분인데, 그중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부분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내용 이였다. 강의가 지루할 때 쯤에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맞추는 학우에게 공무원 기출문제집, 간식으로 나눠준 바나나 몽쉘 한 박스를 상품으로 주었다. 시간이 부족하여 준비한 내용을 모두 듣지는 못하였지만 처음 앞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훑어서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부족함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강의였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신 박희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러한 강의를 들은 재학생, 졸업생들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사서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발행후기

15 김남정 (편집부 부장)

1학년때 주영언니와 아영언니 아래에서 부원으로 그림비를 만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부장으로 그림비를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못 할 것 만 같았는데 너나들이 학생회에서 도와주고, 가장 내 옆에서 많은 고생해준 차장 보경언니 덕분에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바빠져서 그림비에 대해 소홀해졌는데 불평불만 없이 잘 이끌어준 보경언니한테 너무 고맙고, 기사 팀인 소희,보민이,정한이,준혁이! 낮가림 많은 내 아래에서 고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처음 니네를 만났을 때 가진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 아래에서 1년동안 버텨주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당. 편집팀 민석이,하영이,석진이! 더 많이 친해지고 알아가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못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야. 그래도 보경언니 말 잘 듣고 항상 이쁜 편집해줘서 매번 고마웠어!!그리고 보경언니! 솔직히 1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고, 덜렁거리고 막무가내인 나랑 고생해줘서 진짜 수고 많았어!언니랑 1년보내서 너무 다행이야!!둘다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다 끝내서 발행후기 쓰는 것도 신기하고 언니랑 더 친해져서 좋았다! 그리고 내년 부장인 소희랑 하영이!!!이 시점에서 가장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나랑 보경언니도 잘 해낸 편집부니까 니네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진짜 33대 너나들이 학생회 편집부 1년동안 고생했습니다!!!

15 전보경 (편집부 차장)

작년 그림비 발행후기를 쓴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그림비 발행후기를 쓰네요! 완성된 그림비 표지와 내용들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너무 촉박해서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년도는 저에게 참 많은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빠서 편집팀 친구들을 잘 못 챙겨준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아쉽기도 해요. 얼떨결에 맡은 차장자리가 많이 부족 했을텐데 잘 따라준 편집팀, 기사팀 친구들 정말 고마워! 항상 옆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준 남정이도 정말 고맙고..우리 정말 막판에 고생했다ㅜㅜ 마지막으로 표지 디자인 도와준 강희도 고마워!!!! 또 내년 부장, 차장을 맡은 소희와 하영이! 내년엔 학교나 과에 변동사항이 많아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뒤에서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16 김소희 (기사)

편집부에 처음 들어오게 된 건 나름 일 년의 성과가 남는다는 것이 다른 집부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글도 잘 못 쓰는 제가 기사를 잘 쓸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벌써1년이 지나 제가 차기 편집부 부장이 되었네요! 부장으로 편집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지만 차장인 하영이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같이 일 해준 동기친구들도 고맙고 그림비가 잘 마무리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도 내년에 후배들과 함께 예쁜 그림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 박하영 (편집)

학기 초에 코트 입고 벽에 붙여진 학생회 칸에 어디 이름을 쓸까 고민 했던 것이 한 달 전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제가 편집부 차기 차장이 되었습니다. 남정선배와 보경선배처럼 후배를 이끌어나가는 선배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새롭습니다. 1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이제 곧 그림비가 나온다고 해서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편집한 기사들을 그림비에 담을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뜻 깊은 일은 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포토샵을 배우고 모자란 실력으로 남들에게 도움 받아 기사를 꾸미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시간들도 다 같이 잘 보냈으면 좋겠고 내년 부장인 소희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6 강석진 (편집)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버리기 직전이비다. 학교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때문인지 그린비의 완성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듯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사를 마무리한 편집팀 부원들, 유려하고 가지런한 문채로 멋진 기사를 써준 기사팀 부원들, 바쁜 와중에 후배들을 도우며 그림비 작성의 가장 큰 부분을 감당한 부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선배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림비에 우리 16학번들이 물려받은 편집 팀의 정신을 잘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16 오민석 (편집)

신입생으로 들어와 강의실도 햇갈려서 고생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발행후기를 써야한다는 말에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다고 느껴요.^.^;; 처음 편집부에 들어와 오랜만에 만져본 포토샵이 어색해서 편집부 동기와 함께 밤을 세가며 고생했던 때가 생각나는데 이젠 16년 그림비가 완성되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시원하면서도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포토샵을 자유자재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젠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작업시간도 많이 단축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편집부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16 문준혁 (기사)

원래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기에 기사를 써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편집부를 선택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 발행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고생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보람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편집부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년에 부장차장이 된 소희와 하영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제 기사가 담긴 그림비가 나온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 년 동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6 김보민 (기사)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야 1학년을 뜻 깊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집부들을 둘러보던 도중 편집부에서 발행하는 '그림비'를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편집부에서 처음 맡게 된 일은 엠티 기사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편집부에서도 처음이었지만 대학생할 중 내게 부여된 일도 처음이었기에 기사를 쓰는 일은 뜻 깊었고 애정 있는 기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편집부에서 기사를 쓰는 일은 좋은 기회가 되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희 과 주요 행사를 더욱 자세히 기억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참여한 그림비여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잘 나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내년 그림도 무사히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고 소희랑 하영이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16 김정한 (기사)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 학생회는 딱딱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단체 인줄 알았는데 학교를 입학하고 선배님들을 알게 된 후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학생회 선배님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편히 대해 주시니 학생회에 대한 거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학생회를 하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편집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사와 편집 두 팀을 나눠서 한다는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기사 팀이 되었고 기사를 쓰는 일이 많이 힘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행사에 참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축제, 저자와의 만남 제가 참여한 기사들은 많지 않지만 다른 행사도 기사로 작성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사 작성은 저에게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1년 간 열심히 쓴 기사로 그림비를 발행 한 것이 이번 년도에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2학년이 되더라도 시간이 난다면 편집부 일을 돕고 싶고, 너나들이 편집부 파이팅!!! 1년 동안 이끌어준 남정선배, 보경선배에게 감사드리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15 김강희 (표지 디자인)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문정과 소식지의 표지디자인을 맡은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학과의 대소사를 기록하고 보존해주는 그림비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정보

편집부장: 15김남정

편집차장: 15전보경

편집부원: 15손재희, 16오민석, 16김정한, 16김소희
16박하영, 16김보민, 16문준혁, 16강석진

발행일: 2016년 12월 1일

발행처: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전공

‘길이 남을 편집국’

발행인: 전보경, 김남정

2016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소식지